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집착 떼려고 방편으로 주인공 세워

☞ 15면에서 계속

말로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만 올리라는 게 아니라 뜻으로써 '주인공!' 한다면,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형성을 시켜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화해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장본인, 뿌리인 당신을 바로 삼천대천세계가 공생으로써 공용으로써 공체로써 돌아가는 이치를 합해서 주인공이라고 일컬은 그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형성시켰으니까 안 되는 것도 당신이 할 수 밖에 없다' 하고 그 진실하게 믿는 마음을 거기다가 일임시키고, 또 잘 되는 것도 감사하게 일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당신밖에 할 수 없어' 하고 믿고 일임시킬 때는 진정코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서도 "주인공! 나 좀 낫게 해 줘" 이런다면은 벌써 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길을 가려해도 돌아서 가는 격이 되죠.

공을 칠 때에는 가서 탁 맞아야 그 공의 힘을 100% 쓸 수가 있는 거지, 공을 쳤는데 비껴서 맞는다면은 절대로 공 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둘로 보지 마시고 직속 "네가 형성시켰고 네가 끌고다니고 수만억겁을 끌고다녔고 현재어도 끌고 다니니까 바로 당신이 할 수 밖엔 없지 않은가!" 하고 믿고 맡겼을 때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이겁니다. 방황하지 말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이끌고 다니는 것도 바로 네가 이끌고 다니는 거지, 몸뚱이가 이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것 아니겠는가!

그 뿌리는 심봉과 같아서 바로 에너지와 같고, 비행기 프로펠라가 돌아가는 축과 같은 거기 때문에 천지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모든 일체만법을 운영하고 행을 하는 것도 마음의 근본입니다. 이 마음의 근본, 여러분이 이 묘한 마음의 근본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어느 부처님이나 어느 스님은 그것을 잘 하시지만 우리같은 중생들이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과 더불어 모든 형상도 다 부처님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마음 하나가 즉 말하자면 물리가 터지지 못하고 자기를, 전자의 자기 낳기 이전을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중생이라는 말을 듣게끔 돼 있죠. 이것 저것 따지거나 생각하지 말고 진실히 믿고 놓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②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그건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공한 자체도 공했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마저도 공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놓으면 아주 편안해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이 어떠한 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일은 조그만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이 딱 벌어지거든. 그런데 도저히 인간으로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조그만 일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은행에서 차압을 당해서 이제는 음짝없이 다 뺏기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애들하고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귓속에다 들이대고 얘기해줬죠. "당신만 알고, 당신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 그럼 될 거야"그랬어요. 주인공이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입자가 나가는 걸 '보살'이라고 하죠, 얼른 쉽게 말해서. 부처님 한생각에 천백억 보살이 나가서 응신이 돼 주느니라. 그것을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니까 부처님 원자 안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두 제각기 다 자기 소임을 해 준단 얘기죠. 그걸 거짓으로 생각을 해선 안돼요.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계로 들어가니까 심성을 꼭 넣어야 정신계하고 물질계하고 똑같이 중용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이 돼서 문제가 된 거지, 심성 과학이라면 어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병이 많이 오고 그러는 것도, 내 집을 지키려면은 내 집에 주인을 둬야 내 집을 지키죠. 집을 비우고서 그냥 어디 나가려면은 집 지키는 사람을 꼭 하나라도 놔두고 가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아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인공! 너 집 좀 지켜줘' 하고선 나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디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냥 있더래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개개인 집이 한 몸의 집인데, 이 집 주인이 있어야 세균성·영계성·인과성·업보성 이거를 다 막죠. 이걸 대치를 하죠. 그런데 주인이 없다면 대치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어야 한다, 자기 나무는 반드시 자기 뿌리를 믿고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그 믿음을 진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물을 산이라 해도 되나요

문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제가 스님께 질문 할 것은 남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럴것 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심각한 질문이란,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이나 물건같은 것은 다 제각기 이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산은 꼭 산이어야만 하나요? 물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을 산이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스님 저는 산을 왜 산이라고 해야되는지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스님! 그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답 우리가 살고 돌아가려니까 모든 것을, 돈이라고도 이름을 지어 놨고 또는 물건에도 이름을 붙여 놓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되겠으니까, 어린 애를 낳아도 이름을 붙여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지 이름이 사실은 진실, 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그 이름이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했다는 얘깁니다. 그거고 저거고 다 한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쁜 마음 나오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좋은 마음 나오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좋은 마음이 나오면 좋은 행위를 할 것이고 나쁜 마음이 생기면 나쁘게 행을 할 것이니까 모든 것은 자기 참주인공에 맡겨놓고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 관하면은, 그저 닥치는 대로 거기다 관해서 외정이 나면 놓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놓고 알면 아는 대로 놓았을 때 비로소 참 생명수의 근원이 나에게 알려질 수 있는, 홀연히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이도 자기의 참 주인공이 있음을 알고 믿어서 관해 보세요. 그리고 산을 물이라 해도 돼고 물을 산이라 해도 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편리하도록 모두 약속을 해서 이름지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알기 바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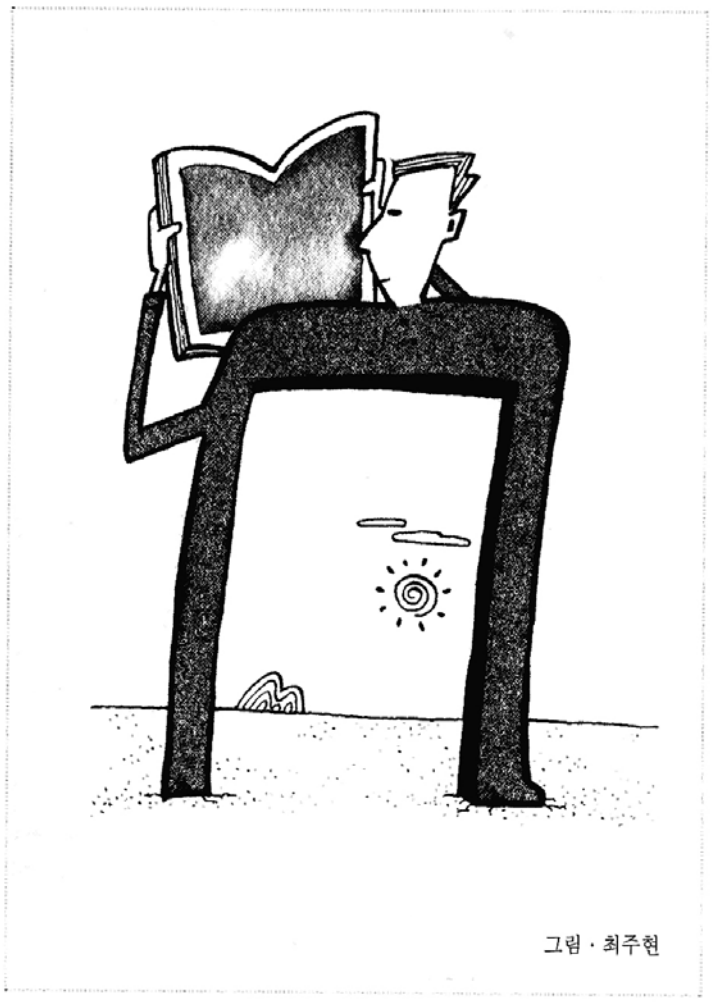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켜본다'는게 무슨 뜻인지요

문 큰스님 안녕하신지요. 늘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가지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의 큰 고민은 제 피부가 매우 안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예전에도 한번 큰스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믿음이 부족한 탓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답답한 마음과 함께 여러가지 상념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이런 의문들이 떠올랐으나 지금도 그 답에는 조금의 진전도 없는 것 같아 갑갑하고 슬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보고 '피부 문제는 별 것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라고 스스로 위안도 삼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나를 위로하는 자신의 모습이 좋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그것이 나오는 자리를 지켜보라는 가르침을 책을 통해 읽었는데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지켜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늘 가르침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또 큰스님의 마음을 청합니다.

답 모든 걸 주인공에 일임을 시키고 주인공이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자로서 내 생리적인 작용을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지켜보고만 나가세요. 계획을 세운다 뭘 어쩐다, 이러는 것도 다 주인공이 바로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 현재의식으로서 지켜만 보고 나가세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지켜보고 나가란 말이에요, 누가 하는가.

수없이 이렇게 일러주고 그러다가 보니깐 많은 사람들이 수확을 거두고, 거둔 사이 없이 거두고 나가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기 주인공을 믿고 나가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돌아가질 않아요. 당신도 지금 당신 주인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신 주인공이 바로 화두예요. 당신 주인공이 그대로 근본이고 그대로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믿어야지. 그리고 당신은 또 당신이 하는 걸 지켜봐요. 무슨 생활을 하지 말랬나, 사랑을 하지 말랬나, 계획을 세우질 말랬나, 돈을 쓰질 말랬나. 그렇게 다 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하고 있나? 이걸 지켜보란 말예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게 다, 한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이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자기가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 한 생에 희생적인 인내와 그 도리를 다 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주인공과 즉 말하자면 생각나기 이전을 부(父)로 생각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기는 자(子)로 생각해서, 체가 없는 부와 자는 둘이 아니어서 상응하면서 협조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 때로는 생각이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생각이 자식이 될 때, 한번 생활하면서들 지켜봤어요? 글쎄 한마음이 말입니다. 때로는 아들의 마음이 되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은 체가 없고 붙들 수도 없고 빛깔도 없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동생이 됐다가, 형이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나툼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느냐 이 소립니다. 그런데 어찌 한마음이 아니겠소. 우리가 생각나기 이전을 찾아라 찾아라 하기 이전에, 찾을 것도 없는 그대로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지켜 볼 수 있다면 그대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타의에서 구하고 이름으로 찾으니 방황
얽히고 설킨 인연 마음으로 녹여야죠

무슨 부처님이 어디 타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타의에서 구하려고 애를 쓰고, 이름을 보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말을 듣고 마음이 방황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선 그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이, 모두 전자에서부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당 칠성각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사람의 인체는 하나고 마음도 하나인데 수없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렇게 타의에서 찾는, 그런 집착성을 떼어버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주인공이니 심주니 했던 거예요. 안으로 자기가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잘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나의 신을 믿으라. 타의의 신을 믿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느니라." 한 예수님의 말. 그래서 자신(自神)을 찾으라고 한 겁니다. 자신(自神)이 하는 것이니 '자(子)는 지켜보라, 부(父)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 자와 부가 둘이 아니게끔 서로 상응하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서 이렇게도 나투고 저렇게도 나투면서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지켜보라' 이런 말이죠. 그 무겁게 짐진 모든 걸 놔 버려라. 네 마음으로 짐을 지워놓고 무겁게 왜 짊어지고 다니느냐?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나요? "모든 것을 놔버리고 쉬어라. 그대로 돌아가면서 여여하니라." 이런 말 뜻을 우리가 새겨서 거름으로 알고 주춧돌로 알고 기둥으로 알고 그것을 참고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 걸음 한걸음 걸어가면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바로 이 생활이 종교요, 종교가 생활이라는 그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구병시식을 하라 하는데…

문 매주 현대불교 지면을 통해 스님 말씀을 읽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어떤 인연으로 스님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고 스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아 현대불교 신문을 구독해 "길을 묻는 이에게"를 쭉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후덕한 부모님 덕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결혼 후 남편 사업이 잘 돼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고 학업에도 별 문제없이 대학 진학도 무난히 한 편입니다. 저희 부부도 되도록이면 남에게 보탬이 될 지언정 해를 입히는 일 없이 살려고 노력해 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회사를 정리하고 지금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친구 권유로 운명을 잘 봐 준다는 어떤 스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 말씀이 저에게 친정 쪽 조상들 영혼이 붙어 그렇다며 구병제를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족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정말 조상님들 영혼이라면 후손에게 해롭게 할지 궁금합니다. 저 하나만 당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니 눈앞이 캄캄하고 심란합니다. 스님 구병제란 무엇인지요? 스님 말씀대로 빈집에 도둑 들듯이 제가 부족하고 중심이 잡히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하고 열심히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려 합니다만 방법도 잘 모르겠고 마음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스님.

> 한생각이
> 보배입니다
> 한생각에 따라
> 인생의 주인되고
> 팔자운명에
> 휘말리기도 하죠

답 구병시식을 한다고 해서 영을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본래 쫓을 게 없고 본래 나한테 마구니가 든 게 없고 본래 고가 없고 본래 그렇게 아주 평화롭고 좋은 것인데, 일부러 지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신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붙을 게 없다는 것을 이해를 조금 시키고선 "오늘부터 다른 거 하나도 없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무조건 맡겨 놔라"라고 항상 말씀해드립니다.

우리 지금 선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단전호흡을 하다가 병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명상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도 많구요. 왜 병이 드느냐 하면은 모두 타의에서 구하거든요. 싹이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믿고 거기에 일임할 수 있어야 도를 이루고 자기 마음을 발전시키고 이러는데, 싹이 딴 데를 보고서, '아이고! 나 좀 통하게 해주시오! 나 뭘 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연방 틀어끼고 앉아가지고 상대를 믿고 돌아가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고선 툭하면 조상이 잘못돼서 그러느니 업이 많아서 그러느니 팔자니 운명이니 하며 야단들을 하죠. 못났든 잘났든, 배웠든 못배웠든 내가 지금 한발짝 한발짝 걸어다니는 게 어떤 놈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다니는가를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한 생각 한 생각하는 게 금입니다. 금! 보배고요, 한 생각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팔자운명에 휘말려 사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주도에서 4. 3 사건이 난 뒤에 일입니다. 큰 구렁이가 뜰뜰 틀고선 집 앞에 와서, 항상 앞에 와서 앉아서 계란을 하나씩 갖다가 툭툭 깨뜨려 먹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놈의 구렁이가 왜 우리 귀한, 예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계란이 귀했습니까? 지금은 흔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도 못 먹는 계란을 이 구렁이가 갖다가 먹는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알미웠던지 죽여야지 하고 별렀답니다. 그러고는 밤에 잠을 자려니까, 이건 어느 스님의 말씀입니다.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아마 삼매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구렁이가 턱 일어서는데 보니까 자기 친척집 할아버지더랍니다. 할아버지가 그 4. 3 사건이 났을 때에 그만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집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그래, 네가 얼른 내 이 옷을 좀 벗겨다오"이러시더랍니다. "내가 옷 벗기 위해서 네 눈에 이렇게 띄고 있지 않니?"하더랍니다. "제발 좀 이 옷을 벗어야 할텐데 내 자유로서 옷을 벗을 수는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죽이려다가 마음이 여려서 못 죽이고, 사흘을 내리 그러다가 그때는 돌을 가지고 그냥 죽였답니다. 그런데 그 죽이던 날 저녁에 꿈에 할아버지가"내 모습을 이렇게 벗겨줘서 나는 이제 환생을 하느니라"하면서 그냥 그 공중으로 사인교를 타고 가시더랍니다. 이러한 일도 있듯이, 이렇게 꿈과 생시도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꿈도 그렇게 꾸어지고, 꿈에 생각을 하는 것이 생시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꿈이나 생시나 '아, 주인공은 바로 내 뿌리야. 한마음이 뭉쳐진 이 뿌리는 바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내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뿌리만이 해결 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으면 그거는 다 원자에서 분자가 나가고 입자가 돼서 화하듯이 그리고 또 나가서 원자가 되듯이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심쩍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기가 못믿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법을 열심히 배우셔서 실천을 해보실 때에 바로 체험도 하시고 일도 성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행스님과 한자리 되는 이치

문 대행스님을 만나는 비결은 무엇이고, 대행스님 자리하고 내 자리가 한자리가 되는 이치를 글이 아닌 글로 전해 주십시오.

답 여러분, 제 삼자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저 없든지 있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진짜로 믿고 '너만이 나를 내내, 세세생생에 이끌어 갈 수 있는 너야. 이끌어 온 것도 너니까'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한데 맡겨 놓으면, 자기가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난 누가 뭐래도 편안하게 삽니다. 싱긋이 한번 더 웃음이 나면 덜 늙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 나를 알게 될 겁니다. 어디 가서 살고 있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내가 여기만 있는지, 아니 껍데기가 아니라 내가 여기만 살고 있는지 어디 또 다른곳에 살고 있는지 그것도요. 그래야 나와 한자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